광주일보·조선대병원 공동기획

암 아는만큼 이긴다 〈4〉 소아암

33%는 백혈병…생존율 80%로 향상

광복 전후 우리나라 소아의 중요한 질병은 감염병과 영양실조였다. 그러나 경제 및 위생 상태의 개선, 다양한 항생제의 출현, 예방접종의 보편화 등에 따라 이들 질병은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 이에 비하여 선천 기형과 바이러스 감염, 알레르기 질환, 악성종양, 불의의 사고와 중독 등은 그대로 남아 있거나 증가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소아암의 발생**=국내에서 발생하는 15세 미만의 소아암 환자는 매년 약 1천200명이 새로이 발생되고 있고, 특히 4~5세 이하에서 발생하는 빈도가 아주 높다. 소아암은 혈액암인 백혈병이 약 3분의 1 정도로 가장 흔하며 5세 이후 뇌종양, 악성림프종이 그 다음으로 환자 발생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소아암이 왜 생기는지 아직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았으나, 대부분 환경 요인과 유전 요인이 함께 관련되어 있으며, 면역 결핍 상태나 염색체 복구 체계에 이상이 있는 질환에서 많이 발생한다.

성인 암이 주로 환경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과 달리 소아암은 비교적 환경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원자폭탄, 방사선 노출, 방사선 치료, 자외선 조사, 화학물질, 식이에 포함된 발암물질들이 환경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도 있다.

양은석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입원·치료중인 소아암 환자를 진찰하고 있다. 〈조선대병원 제공〉

성인암에 비해 확산 빠르고 예방·발견 어려워

진단 당시 80%는 전이…피로·복부 팽만 등 증상

◇**소아암과 성인암의 차이**=소아암은 성질, 분포 및 예후에 있어서 성인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첫째, 성인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암의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소아암의 발생은 5세 미만의 소아와 청소년기에 두 정점을 보인다.

둘째, 성인에서는 폐암·대장암·유방암·전립샘암 등이 많은 반면 소아와 청소년기에는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뇌종양·림프종·연부 조직 육종·골육종 등이 많다. 5세 이전에는 성인에서 거의 없는 신경모세포종과 윌름즈 종양의 발생 빈도가 높다.

셋째, 성인의 경우 조기 암을 시사하는 종양 표지자가 많지만, 소아의 경우는 집단 선별 검사로 발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다섯째, 소아암은 성장이 빠르고 침윤성이며 조직이나 장기의 심부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암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진단 당시에 이미 80% 정도가 원격 전이가 일어난 상태로 발견된다. 반면 성인 암은 진단 당시에는 20% 정도만이 원격 전이가 일어난 상태다. 여섯째, 소아암은 성인 암과 달리 발암물질에 노출된 병력이 거의 없으므로 예방이 어렵다. 일곱째, 소아암은 성인암보다 화학요법에 대한 반응이 좋아 치료 성적이 훨씬 좋은 편이다.

◇**증상과 치료**=소아암 세포는 기본적으로 매우 빨리 자라는 성질이 있어, 병의 시작에서부터 진단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이다. 종괴가 만져지면 일단 악성 종양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아야 하며, 양성이라 생각할 수 있는 몇몇 질환을 제외하고 조직 생검을 하여야 한다. 또한 종양의 종류에 따라 증세가 다르게 나타난다.

백혈병의 경우 창백함과 피로, 감염에 의한 발열과 출혈자반, 코피 등이 나타난다. 주로 부신에서 발생하는 신경모세포종이나 콩팥에서 발생하는 윌름즈 종양 및 간암은 별다른 증상 없이 복부 팽만이 눈에 띌 정도이다. 하지만 체중감소, 설사, 미열, 성장장애, 안구경련 등 비특이적인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인 병의 증상과 잘 구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성인 암이 조기에 발견되면 치료가 잘 되듯이 소아암 역시 조기에 발견되면 치료가 더 잘 되고 예후가 좋다.

소아암의 치료는 성인 암과 마찬가지로 항암화학요법·수술·방사선 치료 등을 병행한다.

일반적으로 소아암은 진단 당시 전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체로 이 세 종류의 치료가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골수와 말초 혈을 이용한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기도 한다.

소아암의 생존율은 괄목할 만큼 개선되어 1970년대 이전에는 25% 미만이었으나 최근 대부분 소아암의 생존율이 80% 정도로 현저하게 향상됐다. 이렇게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여러 요인 중에는 성분 수혈, 혈액세포 자극인자들의 사용, 그리고 감염에 대한 예방 등 지지요법의 개선에 있다. 그리고 치료의 발전으로 좀 더 강한 치료를 과감하게 시도한 임상 경험의 축적과 함께 조혈모세포이식이 보편화되고 제대혈 이식과 면역치료 등의 치료 방법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양은석 교수〉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봄 불청객' 황사 대처요령

외출후 눈·코 반드시 씻고 알러지 유발 식품 피해야

요즘은 잠시만 바깥에 나갔다 와도 입안에 모래가 든 것처럼 껄끄럽고 목이 아픈 경우가 많다. 황사에 든 미세먼지와 중금속 물질 때문이다.

한국건강관리협회광주전남지부(본부장 조재현)의 도움말로 황사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황사로 야기되는 질병을 유형별로 보면 크게 알레르기성 결막염, 기관지천식, 피부질환 등을 들 수 있다.

황사가 이어지면 우선 눈병환자들로 안과가 붐빈다. 봄철 건조한 공기가 자극성 또는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잘 일으키기 때문이다. 외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외출했을 경우는 곧바로 미지근한 물로 눈과 콧속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 좋다.

황사가 폐로 들어가면 기도점막을 자극해 건강한 사람도 호흡이 곤란하고 목이 아픈 증상을 느낀다. 만약 기관지가 약한 천식 등 호흡기질환 환자가 황사에 노출되면 호흡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황사가 심할 경우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으며, 실내에서도 건조한 공기를 해소하기 위해 가습기 등을 이용해 실내 습도를 높여줘야 한다.

건조한 날씨에 황사, 꽃가루까지 겹치면 피부에 가려움증, 따가움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심할 경우 발진이나 발열, 부종으로 이어지는 피부염과 피부 알러지로 번질 수 있다.

여성의 경우 봄철에 특히 피부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사항은 화장보다 세안인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얼굴에 먼지나 꽃가루가 남아있으면 알러지를 일으키기 쉬우므로 미지근한 물로 저자극성 클렌징 폼이나 미용비누 등으로 세안한다. 얼굴을 너무 강하게 문지르지 말고 깨끗한 물로 여러번 헹궈내는 방법이 더욱 좋다.

이외에도 황사로 인한 감기와 후두염, 천식 등의 질환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정생활에서도 황사에 대처하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 아이방에 있는 털이 긴 봉제인형이나 거실의 카펫, 작은 화분, 애완동물 등의 청소 및 관리에 주의를 기해야 한다. 사람에 따라 달걀, 우유, 콩, 새우, 조개 같은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은 황사 기간 동안 잠시 멀리하는 것이 좋다.

또한 창문 등의 단속으로 외부 오염물질이 실내로 들어오지 않게 하되 아파트의 경우 환기를 위해 개방한 후에는 먼지가 쌓이기 쉬운 곳에 물걸레질을 여러 번 해주는 것도 좋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치과병원 리모델링 완료

맞춤형 평생구강관리 프로그램도 시행

호남지방 최초의 대학 종합 치과병원으로 지난 1978년 개원한 조선대치과병원(원장 황호길)이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환자맞춤형 평생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인 'HOPE 11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카페 분위기로 바뀐 환자대기실.

지난 2000년 12월 신축병원으로 이전한 조선대치과병원은 4개월에 걸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오는 7일 오전 11시 30분 치과병원 현관 앞에서 치과계 인사,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완공식을 갖는다. 또 이날 오후 4~5시 치과대학 1층 대강당에서 고객 및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관리 강좌(구강예방관리 및 잇몸질환 예방과 임플란트)를 마련한다.

이번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각 진료과 진료공간을 확장해 환자접근성 및 진료 효율성을 극대화했으며 기존 임플란트센터를 확장해 진단 및 수술, 보철에 이르기까지 의료진 협진을 통해 임플란트 전문센터 중심의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환자 대기공간을 더욱 안락하게 만들어 안정감을 고취시켰으며, 라커룸을 만들어 소지품 보관을 용이하게 하고 메이크업까지 할 수 있는 다용도 공간으로 확대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병원 학마을봉사회 새 회장 곽상현 교수 선출

전남대병원 학마을봉사회가 최근 제8차 정기총회를 열고 곽상현 교수(마취통증의학과)를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와 함께 제 5기 임원진으로 부회장 김명규 교수(신경과)와 안순희 중앙지원과장을, 총무이사에 윤준식 사업사업팀장, 신임감사로 이윤민 중앙수술실팀장과 조연규 화순병원 원무팀장을 선출했다. /채희종기자 chae@

밝은안과21 윤길중 원장 각막학회 심포지엄 참석

광주 밝은안과21 윤길중 대표원장은 세계 각막학회와 미국 백내장 굴절학회 심포지엄에 참석한다.

윤 원장은 7일부터 14일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되는 이번 세계 각막학회와 미국 백내장 굴절학회 심포지엄에 참석, 환자 증례 발표를 하고 각막 및 백내장 부문 최신 지견과 노하우를 함께 나눌 예정이다.